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발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가 ----- 570장 ----- 다 같 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 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 도 ----- 가 족 대 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부족함과 연약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친히 선을 이루시고 공화로 우리 삶을 채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올 한 해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항상
누리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골로새서 3:15-17 ----- 인 도 자

설 교 ----- 감사의 비결 ----- 인 도 자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참된 감사는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외적 조건으로 따지면 바울은 늘 육체적인 고생과 박해의 위협과 같은 고난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른길로 인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십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를 대표한다는 의미와 그렇게 할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대표하여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할 때 감당할 능력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모든 일이 그분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4년 우리 모든 가족이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4 설명절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영도교회

The First Yeongdo Presbyterian Church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